소나무 그려진 고려불화 이탈리아서 발견

정우택 교수, 2월 21일 공개… 소나무 그림 불화 최초

소나무가 그려진 특이한 도상의 고려불화가 이탈리아 제노바서 발견됐다.

고려불화 전문가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은 "동국대 개교 110주년 기념사업회의 후원으로 '유럽지역 한국불교미술품 조사연구' 사업을 진행 중 이달 초 이탈리아 제노바의 한 박물관에서 고려 수월관음도 한 점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정 관장에 따르면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가 발견된 곳은 '일본 인쇄 기술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에도아르도 코소네(Edoardo Chiossone, 1833~1889)가 기증한 유물만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코소네는 1875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 인쇄기술을 전수했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23년 간 해당 고려불화를 비롯해 1만 5000여 점의 문화재를 수집했다. 사후 수집 미술품 전부를 제노바 시에 기증했다.

비단에 채색한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는 세로 105.9㎝, 가로 55.4㎝로 바위굴을 연상시키는 암석에 둘러싸여 약간 오른쪽 측면을 향하고 반가한 자세로 관음보살이 바위 위에 앉아있다. 오른손에는 버드나무 가지가 꽂힌 정병이 놓여 있고, 화면 아래에는 왼발을 꿇고 합장한 자세의 선재동자가 배치돼 있다.

정 관장은 "이번에 발견된 수월관음도는 기존의 고려 수월관음도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화면구성 요소가 다양하면서도 구성이 짜임새가 있다"면서 "색의 조화, 치밀한 묘사 등 온화한 화취의 품격 높은 그림으로, 완성도에 있어서 고려불화를 대표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도상 왼쪽 상단부에 있는 소나무 수묵화. 수월관음도 도상에 고식적인 소나무 수묵화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국대 '유럽 불교미술 조사' 일환

코소네 기증作… 유럽 8번째 발견

"색감 변질돼 보존 처리 등 필요해"

이어 "근대 시기 일본이 유럽과 활발하게 소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새로운 불화가 발견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실시된다면 우수한 한국 불교문화재의 발굴도 가능하다는 알게 한 쾌거"라고 밝혔다.



이탈리아 제노바의 박물관에서 발견된 고려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 세로 105.9cm 가로 55.4cm). **사진제공=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

이번 수월관음도에 가장 큰 특징은 도상 왼쪽 제일 위에 그려진 소나무의 존재다. "소나무가 고려불화에 그려진 사례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으며, 도식적이지 않은 전통 수묵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 관장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소나무가 그려진 한국 최고(最古)의 수묵화는 일본 교토 묘만지(妙滿寺)의 '세한삼우도(歲寒三友圖)'로, 수월관음도의 소나무는 이것보다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정 관장은 "수월관음도의 수묵 소나무 그림은 현존 최고(最古) 그림"이라며 "고려시대의 일반회화가 거의 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회화 경향을 짐작하게 하는 아주 귀한 자료"라고 밝혔다.

관음보살의 목걸이 역시 독특한 채색 기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음보살의 몸체부가 금니인 경우, 먼저 목걸이를 그리고 이후 금니를 칠했지만 새로 발견된 수월관음도는 몸체 전면에 금니를 하고, 그 위에 목걸이를 그려 넣었다.

정 관장은 "몸체 전면에 금니를 하고 목걸이를 그린 것은 최대한 금의 효과를 살리려고 한 것"이라며 "이 같은 채색 방법은 이번에 발견된 수월관음도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관장은 현재 불화의 색감이 변질돼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관장은 "이 불화는 애석하게도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여 삼베로 배접했다. 이 때문에 화면의 색감이 변질돼 앞으로 더욱 더 손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보존 처리 등 보존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 각지에 산재하고 있는 고려불화는 현재 165여 점으로, 일본에 120여 점이 있다. 한국에는 20여 점에 불과하다. 유럽에는 4곳의 박물관에 7점이 소장돼 있었으나 이번 발견으로 8점으로 늘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매주 목요일 채식, 생명을 구해요

조계종이 '채식Day, 기부Day' 캠페인을 통해 생명살림에 나선 가운데 2월 23일 캠페인 선포식에 참여한 불자들이 캠페인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채식Day, 기부Day' 캠페인은 매주 목요일 하루 동안 채식을 실천하며 매주 1000원씩 연 4만 8000원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노덕현 기자**

한마음선원 제12회 대행장학회 수여식

대학·고교생 41명에 8740만원



"이 세상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 불자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뜻깊은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선원장 혜수)은 2월 19일 안양 본원에서 '2017년 제12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대행장학회'는 대행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원력을 이어 발족한 장학재단으로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불교청년회 활동을 활발히 해온 대학생과 고등학생, 또 경인교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학업이 우수 대학생 불자가 선정되는 대행장학생에 이두찬(인하대3) 학생 등 13명의 학생이, 봉사정신이 투철한 불자가 선정되는 한마음장학생에 김결연(경희대2) 학생, 오성영(경인교대4) 학생과 김정하(구암고3) 학생 등 28명이 한마음장학생으로 선정됐다. 총 41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8740만원이다.

한마음선원 측은 "대행장학회 장학생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검증된 우수한 학생인 만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마음으로 전달하는 대행 큰스님과 여러 후원자분들의 뜻을 마음깊이 받아 지니길 바란다. 학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서도 우수한 참된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고 축원했다. **노덕현 기자**

1인 시위 청호 스님 "수도사를 살려주세요"

이천~오산고속도로 수행환경 침해 불가피

관계 기관·시공업체 안일한 태도 '눈살'

광주 수도사 앞 26m 지점에 개통 예정인 이천~오산 간 고속도로로 인해 수행환경 침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관계 기관과 시공업체 금호건설 측의 안일한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주 수도사 주지 청호 스님은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사 수행환경 수호를 위한 1인 시위 60일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청호 스님은 이천~오산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촉구하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지만, 관계 기관과 시공업체가 원론적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호 스님은 "저를 비롯한 수도사 신도, 광주사암연합회 스님들은 그동안 고속도로 개설로 인한 극심한 수행환경 훼손을 예방키 위해 서울국토관리청,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 관계기관에 공문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에도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관계 기관에선 '시공업체와 협의하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금호건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발했다.

특히 스님은 금호건설이 1인 시위 초반 협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듯 했으나, 12월 29일 국토부 인허가가 확정되자 돌변했다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 말해놓고, 인허가가 확정되자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이는 불교 전체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분개했다.



청호 스님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스님은 "사찰과 협의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수도사뿐 아니라 조계종단과 불교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수도사 수행환경이 훼손될 경우 앞으로 또 다른 지역과 사찰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함께한 조계종 사회국장 지상 스님도 "광주 수도사에 대한 수행환경 침해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또 다른 피해 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단 내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찾겠다. 주지 청호 스님의 뜻에 맞춰 종단이 힘이 돼 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광주 수도사는 1859년(조선 철종 10)에 건설된 사찰로,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 조계사의 말사이다. 건물로는 대웅전과 요사채가 있으며, 유물로는 조선 후기 조성된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이 있다. **박아름 기자**

구제역·AI 살처분 "무자비한 대학살"

조계종 사회노동위 등, 2월 22일 살처분 동물 천도의식

구제역·AI로 인해 살처분 당한 동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및 동물보호단체가 방역당국의 관리 실패를 고발하고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17개 단체는 2월 2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무자비하고 무용한 생명 대학살을 멈추고 잘못된 방역 관점을 전면 재검토, 국내 축산환경 전환 등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환경 전환을 위해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며 △'감금틀 사육 폐지' 및 '동물복지' 확대 실시 △농가당 가축 사육 '총량제' 도입 △조류독감 피해 경감을 위한 축산 시스템 정비 △사육농가 '거리제한제' 도입 등 10개 사항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 이번 구제역·AI 파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하루속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과 백신 접종을 포함한 체계적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살처분 당한 닭과 오리, 소, 돼지 등에 대한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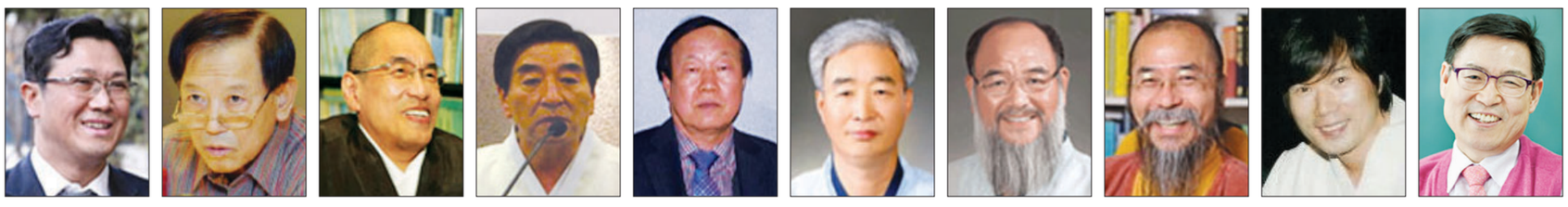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3월9일~6월 22일, 매주 목(木) 18:40~21:30 / 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 (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9일(목) 17:0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 장소 : 동국대학교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